

대학생의 성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

강미라*, 김두화**, 김성현***

〈 목 차 〉

I. 서 론	IV. 요약 및 제언
II. 조사 연구 개관	참고 문헌
III. 연구결과 및 해석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의 시기는 인간의 발달단계로 볼 때 청소년기 후기로서 동시에 청년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며 육체적으로는 생식능력과 출산능력을 갖게 되고 성적 호기심과 성적 충동이 사람의 일생 중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이병우, 1996). 또한 자아를 정립해야 할 성인기 초기로서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인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세대를 키워낼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 시기의 성숙한 성 가치관과 성 행위양상은 생물학적인 성(sexuality)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gender)에 대한 올바른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이상진, 2002).

그러나 현대는 개방화, 국제화 시대로서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향락문화의 발달을 급속히 이루었다. 이로 인해 성의 상품화,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 서구식 사고방식의 유입,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성에 대한 노출, 체계적인 성교육의 부재 등으로 대학생들이 남성과 여성의 존재에 관한

*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특별연구원

**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교수

***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사무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 가치관의 혼돈은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김현숙, 1999).

2004년 12월의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458쌍이 이혼 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해 1년 전보다 조이혼율이 0.5%포인트나 급상승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급한 이혼'의 주 원인은 '성급한 결혼'에 있으며 성급한 결혼은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올바른 이성관, 결혼관, 결혼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인식, 자녀출산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서울대(2003), 제주대(2002) 등에서 실시한 신입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고, 관심이 많은 것이 이성교제이며,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이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이 이성과의 교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실제로 교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성교제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들 대부분이 성과 이성교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한 순간의 충동에 의한 성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들을 전문적인 상담자와 상의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변 친구들과 대화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 성에 대해 그릇된 정보와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에 성교육은 교육 대상자들의 발달 단계와 요구수준에 적절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건전한 성태도 형성을 위한 이성교제 집단 프로그램과 책임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는 성적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대학생들의 성과 관련된 경험실태와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대학생들의 성문화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차후 학생들의 성과 이성교제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와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지 않고 제주대학교 학생으로 한정된 점과 대학생 1000여명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국적 상황으로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만을 통해서 대학생의 성의식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조사하므로 대학생들의 성의식, 태도, 행동에 대해 실증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의 성별로만 구별하여 조사하였고 학년별, 종교별, 나이별, 단과대별로 비교분석 하여 조사하지 못했다.

II. 조사 연구 개관

1. 조사대상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면 <표 II-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조사 대상자 1000여명 가운데서 남학생은 539명으로 전체 55.9%를 차지하고, 여학생은 425명으로 44.1%를 차지한다.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 20-24세, 2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19세 이하는 26%, 20-24세는 62.3%로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었고 25세 이상이 11.6%로 가장 적었다. 학년별로는 1,2,3,4학년 모두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1학년은 25.6%, 2학년은 24.8%, 3학년은 24.9%, 4학년은 24.7%이다. 조사 응답자의 종교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8.2%로 가장 많았고 불교가 26.6%, 카톨릭이 12.1%, 개신교가 8.5%, 기타 종교를 가진 학생이 4.6%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II-1>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

대학별		성별		연령대별		학년별		종교별	
인문대	162(16.8)	남	539(55.9)	19세이하	251(26.0)	1학년	247(25.6)	없다	465(48.2)
법정대	111(11.5)	여	425(44.1)	20-24세	601(62.4)	2학년	239(24.8)	불교	256(26.6)
경상대	167(17.3)	계	96(100.0)	25세이상	112(11.6)	3학년	240(24.9)	개신교	82(8.5)
사범대	73(7.6)			계	964(100.0)	4학년	238(24.7)	카톨릭	117(12.1)
농생대	62(6.4)					계	964(100.0)	기타	44(4.6)
해양대	71(7.4)							계	964(100.0)
자연대	124(12.9)								
공과대	171(17.7)								
의과대	23(2.4)								
계	964(100.0)								

2. 조사기간

본 조사는 2004년 3월부터 4월까지 제주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는 각 학과별로 수업시간 전·후를 활용하여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3. 자료수집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서울대학교(2003), 춘천교육대학교(2002), 한성대학교(2002) 등의 조사도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인적사항 4문항, 성지식 5문항, 결혼에 대한 의견 8문항, 성경험 8문항, 이성교제 2문항, 성문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되지 않은 것이나 불성실한 답안을 제외하고 총 964부를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내용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분석결과에 따라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성지식 정도, 결혼에 대한 의견, 이성교제, 성경험, 성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성지식

성교육 경험, 성교육이 주는 도움, 성지식 정도, 성지식 습득 경로, 성지식 습득 시기,

2) 결혼관

결혼에 대한 의견, 혼전섹스에 대한 의견, 동거에 대한 의견, 혼전순결에 대한 의견, 결혼시 혼전순결에 대한 배우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처신, 결혼 전 상대가 순결하지 않음을 알았을 시 대처방법, 결혼 후 이성 친구에 대한 의견, 결혼 후 혼외정사에 대한 의견

3) 이성교제

이성교제 경험, 이성교제시 신체적 접촉 경험

4) 성경험

섹스경험, 성경험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 성경험의 대상, 성경험 당시의 심리적 상태, 성경험 후의 두 사람의 관계, 성관계 후의 심정,

5) 성문제

성문제, 성문제 해결 방법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지식

성에 대한 지식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성교육이 주는 도움, 성지식 정도, 성지식 습득 경로와 시기를 조사하였다.

1) 성교육의 경험

대학생이 성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결과가 <표Ⅲ-1>에 제시되어 있다. 성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944명 가운데 92.4%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단지 7.6%만이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성교육 중에 '피임'은 22.5%, '성병' 20.3%, '낙태' 19.9%, '섹스' 16.4%, '임신' 13.2%, '전혀없다' 7.6%의 순으로 나타나 피임에 대한 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성병' 22.6%, '피임' 20.3%, '섹스' 18.4%, '낙태' 16.1%, 전혀없다 11.5%, 임신 11.2% 순으로 응답했고, 여학생은 '피임' 24.9%, '낙태' 24.0%, '성병' 17.8%, '임신' 15.3%, 섹스 14.4%, 전혀없다 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남녀 학생 모두에게 많이 다뤄지는 성교육 내용으로는 '성병', '피임'에 대한 교육이고, 특히 '섹스'는 남학생에게, '낙태'는 여학생에게 더 강조되어 교육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교육은 여학생에게 더 많이 제공되거나 여학생의 참여가 더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 성교육의 경험

(%)

구 분	남	여	전 체
전 혀 없 다	151(11.5)	44(3.6)	195(7.6)
섹 스	242(18.4)	177(14.4)	419(16.4)
성 병	297(22.6)	220(17.8)	517(20.3)
피 임	268(20.3)	307(24.9)	575(22.5)
임 신	147(11.2)	189(15.3)	336(13.2)
낙 태	212(16.1)	296(24.0)	508(19.9)
계	528(100.0)	416(100.0)	944(100.0)

2) 성교육이 주는 도움

〈표 2-2〉 성교육이 주는 도움 정도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다	27(6.4)	21(5.4)	48(5.9)	6.647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120(28.6)	114(29.2)	234(28.9)	
그 저 그 령 다	179(42.7)	166(42.5)	345(42.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59(14.1)	72(18.4)	131(16.2)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4(8.1)	18(4.6)	52(6.4)	
계	419(100.0)	391(100.0)	810(100.0)	

〈표Ⅲ-2〉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들에게 성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알아본 결과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고 한 경우가 28.9%,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한 학생은 5.9%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가 36%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그저그렇다' 고 중성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이 42.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가 16.2%,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가 6.4%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23%이다.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많긴 하지만 '그저 그렇다' 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성교육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의 응답을 하였다.

3) 성지식 정도

〈표 Ⅲ-3〉 성지식 정도

(%)

구 분	성 별	매우 잘안다	잘아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잘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χ^2
섹스	남	62(11.7)	153(28.9)	250(47.3)	48(9.1)	16(3.0)	529(100.0)	48.253**
	여	18(4.3)	67(16.0)	260(62.1)	62(14.8)	12(2.9)	419(100.0)	
	전체	80(8.4)	220(23.2)	510(53.8)	110(11.6)	28(3.0)	948(100.0)	
성병	남	38(7.2)	92(17.5)	257(48.9)	118(22.4)	21(4.0)	526(100.0)	29.697**
	여	12(2.9)	38(9.0)	213(50.7)	132(31.4)	25(6.0)	420(100.0)	
	전체	50(5.3)	130(13.7)	470(49.7)	250(26.4)	46(4.9)	946(100.0)	
피임	남	43(8.2)	111(21.2)	248(47.3)	96(18.3)	26(5.0)	524(100.0)	11.200*
	여	21(5.0)	70(16.6)	239(56.8)	76(18.1)	15(3.6)	421(100.0)	
	전체	64(6.8)	181(19.2)	487(51.5)	172(18.2)	41(4.3)	945(100.0)	
임신	남	49(9.4)	121(23.2)	246(47.1)	85(16.3)	21(4.0)	522(100.0)	23.256**
	여	27(6.4)	113(26.9)	237(56.4)	37(8.8)	6(1.4)	420(100.0)	
	전체	76(8.1)	234(24.8)	483(51.3)	122(12.8)	27(2.9)	942(100.0)	

구 분	성 별	매우 잘안다	잘아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잘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χ^2
낙태	남	44(8.5)	85(16.3)	228(43.8)	120(23.1)	43(8.3)	520(100.0)	32.363**
	여	21(5.0)	80(19.0)	241(57.4)	67(16.0)	11(2.6)	420(100.0)	
	전체	65(6.9)	165(17.6)	469(49.9)	187(19.9)	54(5.7)	940(100.0)	

(** : p<.01)

성지식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 <표Ⅲ-3>과 같이 나타났다. 5개 항목 모두 전반적으로 성지식의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잘 알고 있는 편이다' 고 응답한 항목은 '임신' (32.9%)이었고, 다음으로 '섹스' (31.6%), '피임' (26%), '낙태' (24.5%), '성병' (19%), 순이었다. 이로 볼 때 임신과 섹스에 대한 성지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성병은 낮은 편이다.

각각을 성별로 살펴보면 '섹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남학생은 40.6%, 여학생은 20.3%이며, '성병'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남학생은 24.7%, 여학생은 11.9%이며, '피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남학생은 29.4%, 여학생은 21.6%이며, '임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남학생은 32.6%, 여학생은 33.3%이며, '낙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남학생은 24.8%, 여학생은 24%로 나타나 임신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있어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성지식 습득 경로

<표Ⅲ-4>는 성지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가를 나타냈다. 성지식을 얻는 경로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학교' (29.2%)이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나 선배' (19.0%), '컴퓨터나 인터넷' (14.7%), 'TV, 비디오' (12.2%), '책·잡지'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애인' (3.3%)에게서 성지식을 습득한 경우가 가장 적었다. 이로 보아 성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가장 빈번한 경로는 학교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학교' (21.5%), '친구나 선배' (19.8%), '컴퓨터나 인터넷' (19.5%), 'TV나 비디오' (13.8%) 순으로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학교' (39.0%), '친구나 선배' (17.9%), '책, 잡지' (10.9%), 'TV나 비디오' (10.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남녀 학생 모두 '학교'와 '친구나 선배'를 통해서 성지식을 가장 많이 습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컴퓨터나 인터넷'인데 비해 여학생은 '책, 잡지'를 통해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성지식 습득 경로(복수응답)

(%)

구 분	남	여	전 체
학 교	188(21.5)	268(39.0)	456(29.2)
애 인	41(4.7)	10(1.5)	51(3.3)
친 구 나 선 배	173(19.8)	123(17.9)	296(19.0)

구 분	남	여	전 체
책 잡 지	67(7.7)	75(10.9)	142(9.1)
TV, 비 디 오	121(13.8)	70(10.2)	191(12.2)
컴 퓨 터 나 인 터 넷	171(19.5)	58(8.4)	229(14.7)
특별히 얻는 곳이 없다	54(6.2)	52(7.6)	106(6.8)
기타	60(6.9)	31(4.5)	91(5.8)
계	533(100.0)	424(100.0)	957(100.0)

5) 성지식 습득 시기

성 지식을 처음 습득한 시기는 <표Ⅲ-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학교(54.9%) 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26.8%), 고등학교(14.2%) 순으로 많았다. 그리고 대학교(2.7%), 초등 이전(1.5%)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소수였다.

성별로 볼 때에도 역시 모두 동일한 순으로 중학교 때(남53.3%, 여56.8%) 성지식을 가장 많이 얻었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남27.8%, 여25.5%), 고등학교(남13.9%, 여14.6%), 대학교(남3.0%, 여2.4%), 초등학교 이전(남2.1%, 여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대부분이 중학교 이전에 이미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중학교 시기에 가장 많이 성지식이 습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 성지식 습득 시기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초등학교 이전	11(2.1)	3(0.7)	14(1.5)	4.429
초 등 학 교 때	148(27.8)	108(25.5)	256(26.8)	
중 학 교 때	284(53.3)	241(56.8)	525(54.9)	
고 등 학 교 때	74(13.9)	62(14.6)	136(14.2)	
대 학 교 때	16(3.0)	10(2.4)	26(2.7)	
계	533(100.0)	424(100.0)	957(100.0)	

2. 결혼에 대한 의견

결혼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결혼에 대한 생각, 혼전섹스, 동거, 혼전순결, 배우자가 혼전순결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을 때의 처신, 결혼 전 상대가 순결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의 대처법, 기혼자의 이성친구, 혼외정사에 대해 조사하였다.

1) 결혼관

〈표 Ⅲ-6〉 결혼관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결혼을 꼭 해야 한다	214(39.8)	68(16.0)	282(29.3)	151.910**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223(41.4)	118(27.8)	341(35.4)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95(17.7)	224(52.8)	319(33.2)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6(1.1)	14(3.3)	20(2.1)	
계	538(100.0)	424(100.0)	962(100.0)	

(** : p<.01)

결혼관에 대한 질문에서 〈표Ⅲ-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35.4%가 '가능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고, 33.2%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29.3%이며, 2%가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남녀별로 비교하여 보면 결혼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남학생은 '결혼은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가 41.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꼭 결혼해야 한다'도 39.8%로 80% 이상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데 반해 여학생은 43.8%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52.8%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결혼관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중성적인 입장을 더 많이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혼전섹스에 대한 의견

혼전 섹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표Ⅲ-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혼전 섹스는 '옳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23.5%였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응답한 학생이 48%였으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무방하다'가 23.1%, '어떠한 조건이 없이도 혼전섹스는 무방하다'가 5.5%였다. 사랑을 전제로 한 혼전섹스에 대해 개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와 관련된 섹스의 개념을 그리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혼전 섹스는 무방하다' 56%,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무방하다' 18.4%, '옳지 않다' 18%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혼전 섹스는 괜찮다'는 반응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옳지 않다' 30.3%,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무방하다' 28.9%로 나타나 남학생이 혼전 섹스에 대해 여학생보다 더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떠한 조건 없이도 혼전 섹스는 무방하다'는 남학생은 7.5%인데 반해 여학생은 2.8%로 나타난 것이라든지 '혼전 섹스는 어쨌든 옳지 않다'고 답한 여학생은 30.3%인데 비해 남학생은 이보다 적은 18.0%인 것으로 보아 여학생이 혼전 섹스에 대해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7〉 혼전 섹스에 대한 의견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옳지 않다	96(18.0)	128(30.3)	224(23.5)	51.853**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방	298(56.0)	160(37.9)	458(48.0)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무방	98(18.4)	122(28.9)	220(23.1)	
어떠한 조건 없이도 무방	40(7.5)	12(2.8)	52(5.5)	
계	532(100.0)	422(100.0)	954(100.0)	

(** : p<.01)

3) 동거에 대한 의견

〈표 III-8〉은 대학생들이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동거에 관한 생각에서는 '나도 할 수 있다' (35.7%)가 가장 많았고, '이해는 되나 하지 않겠다' (34.2%), '찬성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 (25.3%),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7%)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에 대해 강한 부정을 하는 경우는 4.7%의 소수인 것으로 보아 동거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엔 '나도 할 수 있다' (46.7%)가 가장 많고, '이해는 하지만 하지 않을 것이다' (29.3%), '찬성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 (20.0%),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9%)의 순으로 답한 반면 여학생은 '이해는 되나 하지 않을 것이다' (40.5%)가 가장 많고, '찬성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 (32.1%), '나도 할 수 있다' (21.7%),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7%)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동거에 대한 남녀간에 의견 차이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혼전동거에 대해서도 남학생이 훨씬 더 허용적이고 개방적임을 나타낸다.

〈표 III-8〉 동거에 대한 의견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나도 할 수 있다	250(46.7)	91(21.7)	341(35.7)	61.191**
찬성하지만 나 그럴 자신이 없다	107(20.0)	135(32.1)	242(25.3)	
이해는 하지만 나 하지 않을 것이다	57(29.3)	170(40.5)	327(34.2)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1(3.9)	24(5.7)	45(4.7)	
계	535(100.0)	420(100.0)	955(100.0)	

(** : p<.01)

4) 혼전 순결에 대한 의견

혼전 순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표 III-9〉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55.8%가 '사랑이 문제이지 순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여자는

반드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 (5.9%)는 반응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혹은 여자는 반드시 혼전순결을 지켜야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4.5%인 것으로 보아 그 나머지 70% 이상의 많은 학생들이 혼전순결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9〉 혼전 순결에 대한 의견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사랑이 문제이지 순결 그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	339(63.7)	192(45.8)	531(55.8)	58.057**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다	40(7.5)	57(13.6)	97(10.2)	
현대 여성이라면 자유롭게 성을즐길 수 있어야 한다	57(10.7)	33(7.9)	90(9.5)	
남녀 모두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61(11.5)	116(27.7)	177(18.6)	
여자는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5(6.6)	21(5.0)	56(5.9)	
계	532(100.0)	419(100.0)	951(100.0)	

(** : p<.01)

성별로 보면 남녀가 동일하게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사랑이 문제이지 순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남63.7%, 여45.8%)이고, 그 다음으로는 '남녀 모두 반드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 (남11.5%, 여27.7%)였다. 그러나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한 반응은 여학생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다' (13.6%)였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현대 여성이라면 자유롭게 성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10.7%)였다. 이에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혼전순결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5) 결혼시 혼전 순결에 대한 배우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처신

〈표Ⅲ-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결혼시 배우자가 순결을 문제삼는다면 어떻게 처신하겠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 955명 중 40.7%가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28.5%), '당장 헤어진다' (14.6%), '상대의 혼전 순결을 따지며 싸운다' (10.6%), '상대의 처분에 따른다' (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남학생은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54.2%)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23.3%), '당장 헤어진다' (9.2%), '상대의 처분에 따른다' (8.4%), '상대의 혼전 순결을 따지며 싸운다'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가 3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23.7%), '당장 헤어진다'(21.3%), 상대의 혼전 순결을 따지며 싸운다'(17.8%), '상대의 처분에 따른다'(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혼전 순결에 대해 배우자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남학생은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당장 헤어진다', '상대의 혼전 순결을 따지며 싸운다' 등의 수동공격적인 태도를 더 강하게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0〉 결혼시 혼전 순결에 대한 배우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처신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당 장 헤 어 진 다	49(9.2)	90(21.3)	139(14.6)	142.839**
상대의 혼전순결을 따지며 싸운다	26(4.9)	75(17.8)	101(10.6)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289(54.2)	100(23.7)	389(40.7)	
상 대 의 처 분 에 따 른 다	45(8.4)	9(2.1)	54(5.7)	
기 타	124(23.3)	148(35.1)	272(28.5)	
계	533(100.0)	422(100.0)	955(100.0)	

(** : p<.01)

6) 결혼전 상대가 순결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대처법

만약 결혼 상대가 순결하지 않았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표Ⅲ-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955명 중 55.9%가 '상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다시 생각 해 본다'(27%), '기타'(13.9%), 그리고 '헤어지겠다'(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배우자의 결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상관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결혼 상대자가 순결하지 않았음을 알았더라도 '상관없다'가 60.8%로 가장 많고, '다시 생각 해 본다'(24.6%), '기타'(11.3%), '헤어지겠다'(3.4%)의 순이었으며, 여학생은 '상관없다'(49.8%), '다시 생각 해 본다'(30.1%), '기타'(17.3%), '헤어지겠다'(2.8%)로 응답하였다. '상관없다'는 반응에 대해 남학생이 더 많이 응답을 한 것을 보면 배우자의 혼전순결에 대해 여학생보다 더 개방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1〉 결혼 전 상대가 순결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대처법 (%)

구 분	상관없다	다시생각해 본다	헤어지겠다	기 타	계	χ^2
남	324(60.8)	131(24.6)	18(3.4)	60(11.3)	533(100.0)	141.159**
여	210(49.8)	127(30.1)	12(2.8)	73(17.3)	422(100.0)	
전체	534(55.9)	258(27.0)	30(3.1)	133(13.9)	955(100.0)	

(** : p<.01)

7) 결혼 후 이성친구에 대한 의견

〈표 Ⅲ-12〉 결혼 후 이성친구에 대한 의견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배우자와 다른 차원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193(36.5)	215(51.2)	408(43.0)	23.506**
상대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만나야 한다	246(46.5)	147(35.0)	393(41.4)	
배우자와 별개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37(7.0)	32(7.6)	69(7.3)	
결혼을 했으므로 다른 이성을 만나면 안된다	53(10.0)	26(6.2)	79(8.3)	
계	529(100.0)	420(100.0)	949(100.0)	

(** : $p < .01$)

〈표Ⅲ-12〉에서는 결혼 후 이성친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949명 중 43%가 '배우자와 다른 차원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상대방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만나야 한다'(41.4%), 결혼을 했으므로 다른 이성을 만나면 안된다(8.3%), 배우자와 별개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한 이후에는 '다른 이성을 만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8.3%이고 나머지 92%가 이성친구를 '결혼 후에도 만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혼자들의 이성교제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은 '상대방이 허락하면 만날 수 있다'는 의견이 46.5%로 가장 많았으나 여학생은 '배우자와는 다른 차원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51.2%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기혼자의 이성교제에 대해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8) 결혼 후 혼외정사에 대한 의견

결혼한 후 혼외정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물음에 대해 〈표Ⅲ-1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연정도 품어서는 안된다'(52.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22.1%)고 응답해 혼외정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동일하게 '어떤 형태의 연정도 품어서는 안된다'(남49.9%, 여55.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남22%, 여22.2%), '성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다'(남18.0%, 여14.9%), '사랑하는 사람끼리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남10.1%, 여7.6%)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혼외정사에 대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Ⅲ-13〉 결혼 후 혼외정사에 대한 의견

(%)

구 분	남	여	전체	χ^2
사랑하는 사람끼리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53(10.1)	31(7.6)	84(9.0)	4.218
성적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94(18.0)	61(14.9)	155(16.6)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의 연정도 품어서는 안된다	261(49.9)	226(55.3)	487(52.3)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	115(22.0)	91(22.2)	206(22.1)	
계	523(100.0)	409(100.0)	932(100.0)	

3. 이성교제

이성교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이성교제의 경험, 이성교제시 신체접촉 경험을 조사하였다.

1) 이성교제 경험

〈표 Ⅲ-14〉 이성교제 경험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현재 교제 중이다	187(35.6)	154(37.0)	341(36.2)	3.936
현재 교제하지 않지만 경험이 있다	240(45.6)	166(39.9)	406(43.1)	
전혀 경험이 없다	99(18.8)	96(23.1)	195(20.7)	
계	526(100.0)	416(100.0)	942(100.0)	

〈표Ⅲ-14〉에서는 대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해 본 경험이 있나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성교제의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942명 중 '현재 교제를 하지 않지만 경험은 있다'가 43.1%, '현재 교제 중' 36.2%, '전혀 경험 없다' 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전체응답자의 반응과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 이성교제시 신체접촉 경험

〈표Ⅲ-1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성교제시 신체적 접촉의 범위를 묻는 물음에 29.6%가 '키스'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손잡기, 팔짱끼기'(23.4%), '포옹'(15.3%), '섹스'(14.5%), '애무행위'(10.7%),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6.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녀 학생 모두 '키스'(남23.6%, 여37.5%)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섹스'(22.4%), '가벼운 스킨십'(20.7%), '포옹'(14.3%), '애무행위'(12.6%), '신체적

접촉 없었음'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과는 달리 '가벼운 스킨십' (27%), '포옹' (16.5%), '애무행위' (8.3%), '신체적 접촉 없었음' (6.7%), '섹스'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학생은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 '섹스' 라는 행위까지 가고 있지만, 여학생은 '가벼운 스킨십' 이나 '포옹' 까지만 허용하려는 태도가 강한 편이며, 특히 '섹스' 의 경우엔 남학생이 22.4%, 여학생은 4.0%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여 신체적 접촉에 있어서 남학생이 더 대담한 것 같다.

〈표 III-15〉 이성교제시 신체접촉 경험(복수응답) (%)

구 분	남	여	전 체
신 체 적 접 촉 이 없 었 음	38(6.4)	30(6.7)	68(6.5)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	123(20.7)	121(27.0)	244(23.4)
포 옹	85(14.3)	74(16.5)	159(15.3)
키 스	140(23.6)	168(37.5)	308(29.6)
가슴 등의 신체부위에 대한 스킨십(애무행위)	75(12.6)	37(8.3)	112(10.7)
섹 스	133(22.4)	18(4.0)	151(14.5)
계	433(100.0)	328(100.0)	761(100.0)

4. 성 경험

성경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섹스의 경험, 성경험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 성경험의 대상, 성경험 당시 심리적 상태, 성경험 후의 두 사람의 관계, 성경험 후의 심정을 조사하였다.

1) 섹스 경험

〈표 III-16〉은 대학생들이 섹스에 대한 경험을 보여준다. 자의든 타의든 섹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냐는 물음에 대해 70.8%가 '없다' 고 응답한 반면, 29.2%가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섹스의 경험을 성별로 살펴 볼 때 섹스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여학생은 91.8%인 반면, 남학생은 53.9%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남녀의 섹스 경험은 대조적이다.

〈표 III-16〉 섹스 경험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없 다	277(53.9)	380(91.8)	657(70.8)	159.284**
있 다	237(46.1)	34(8.2)	271(29.2)	
계	514(100.0)	414(100.0)	928(100.0)	

(** : p<.01)

2) 성경험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

〈표 Ⅲ-17〉 성경험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상대방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충동을 느껴서	13(5.7)	2(6.5)	15(5.8)	14.511*
결혼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	96(42.1)	14(45.2)	110(42.5)	
결혼 상대자인지에 대한 고민은 했지만 서로 원해서	32(14.0)	3(9.7)	35(13.5)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데이트 중에 분위기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42(18.4)	2(6.5)	44(17.0)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	13(5.7)	6(19.4)	19(7.3)	
상대방의 청에 못이겨서	3(1.3)	2(6.5)	5(1.9)	
상대방이 강제적	4(1.8)	0(0)	4(1.5)	
기타	25(11.0)	2(6.5)	27(10.4)	
계	228(100.0)	31(100.0)	259(100.0)	

(* : p<.05)

성경험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을 묻는 물음에 〈표Ⅲ-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섹스 경험이 있는 271명중 259명이 응답을 하였는데 '결혼 생각은 하지 않았으나 사랑하기에'가 4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랑하지는 않지만 충동에 의해서' (17.0%), '결혼 상대자인지 고민은 했지만 서로 원해서' (13.5%), '기타' (10.4%), '결혼을 약속했기에' (7.3%), '상대는 원치 안으나 충동 때문에' (5.8%), '상대의 청에 못이겨서' (1.9%),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중한 성행동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감정적으로 성경험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결혼은 생각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이여서' (남 42.1%, 여 45.2%)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남학생은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데이트 중에 분위기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18.4%인데 반해, 여학생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가 19.4%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남녀 모두 '결혼 상대자인지에 대한 고민은 했지만, 서로 원해서' (남 14.0%, 여 9.7%)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더 충동적으로 성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성경험의 대상

〈표Ⅲ-1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성경험의 대상은 누구였느냐는 질문에서 섹스 경험이 있는 258명의 응답자 중 '결혼은 생각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사귀던 사이'가 3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볍게 사귀던 사이' (27.9%), '결혼 상대로 꾸준히 사귀던 사이' (15.5%), 기타(10.5%), '처음 만난 사이' (7.0%), '안면만 있는 사이' (3.5%), '친구사이'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을 비교하여 보면 남녀 모두 성경험의 대상으로 '결혼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지속

적으로 사귀던 사이'(남 32.8%, 여 51.7%)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가볍게 사귀던 사이'(29.7%)인데 비해 여학생은 '결혼상대로 생각하고 꾸준히 사귀던 사이'(31.0%)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여학생은 지속적으로 사귀게 될 때 성경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성경험에 있어서 여학생 보다 충동적임을 알 수 있다.

〈표 Ⅲ-18〉 성경험의 대상 (%)

구 분	남	여	전체	χ^2
가볍게 사귀던 사이	68(29.7)	4(13.8)	72(27.9)	15.281*
결혼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사귀던 사이	75(32.8)	15(51.7)	90(34.9)	
결혼상대로 생각하고 꾸준히 사귀던 사이	31(13.5)	9(31.0)	40(15.5)	
처음 만난 사이	18(7.9)	0(0)	18(7.0)	
안면만 있는 사이	9(3.9)	0(0)	9(3.5)	
친구사이	2(9)	0(0)	2(8)	
기타	26(11.4)	1(3.4)	27(10.5)	
계	229(100.0)	29(100.0)	258(100.0)	

(* : $p < .05$)

4) 성경험 당시 심리적 상태

성경험 당시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표Ⅲ-19〉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섹스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나와 상대방 모두 만족하다'가 4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잘 모르겠다'(24.6%), '나는 불만족하나 상대는 만족한다'(7.3%), '나는 만족하나 상대는 불만족한다'(4.6%), '후회한다'(7.3%), '죄책감을 느낀다'(5.0%), '불쾌감을 느낀다'(1.5%), '상대가 매우 불쾌했다'(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녀 학생 모두 동일하게 '나와 상대방 모두 만족하였다'(남43.2%, 여 41.9%)는 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잘 모르겠다'(25.3%)이고, 여학생은 '잘 모르겠다'(19.4%)와 '나는 불만족, 상대방은 대체로 만족'(19.4%)로 나타나 성경험을 했을 때 남녀 모두 대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9〉 성경험 당시 심리적 상태 (%)

구 분	남	여	전체	χ^2
나와 상대방 모두 만족	99(43.2)	13(41.9)	112(43.1)	11.557
나는 대체로 만족, 상대방은 불만족	10(4.4)	2(6.5)	12(4.6)	
나는 불만족, 상대방은 대체로 만족	13(5.7)	6(19.4)	19(7.3)	
나는 매우 불쾌	3(1.3)	1(3.2)	4(1.5)	
상대방은 매우 불쾌	1(4)	0(0)	1(4)	

구 분	남	여	전 체	χ^2
나 는 죄 책 감 을 느 낌	11(4.8)	2(6.5)	13(5.0)	11.557
후 회 한 다	18(7.9)	1(3.2)	19(7.3)	
잘 모 르 겠 다	58(25.3)	6(19.4)	64(24.6)	
기 타	16(7.0)	0(0)	16(6.2)	
계	229(100.0)	31(100.0)	260(100.0)	

5) 성경험 후 두 사람의 관계

〈표Ⅲ-20〉은 성경험 후 두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준다. 성경험 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응답자 257명 중 53.7%가 '변함없이 계속하여 사귀거나 만나고 있다' 고 하였다. 성경험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중단보다는 관계가 지속되는 경향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험 후 헤어지거나 만남이 중단되고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귀는 경우도 30%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 성경험이 두 사람의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남녀 학생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20〉 성경험 후 두 사람의 관계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변함없이 계속하여 사귀거나 만나고 있다	118(52.2)	20(64.5)	138(53.7)	3.254
헤어지거나 만남이 중단되었다	50(22.1)	6(19.4)	56(21.8)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고 있다	17(7.5)	3(9.7)	20(7.8)	
기 타	41(18.1)	2(6.5)	43(16.7)	
계	226(100.0)	31(100.0)	257(100.0)	

6) 성관계 후 심정

성관계 후의 마음은 어떠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표Ⅲ-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259명 중 '아무렇지도 않다' (23.6%), '기분이 좋다' (19.7%), '임신이 걱정된다' (18.5%), '기타' (16.2%), '후회' (15.4%), '자랑으로 여긴다' (2.7%), '성병이 걱정된다' (2.3%), '죄의식' (1.50%)의 순으로 나타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아무렇지도 않다' (25.9%)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분이 좋다' (19.3%)였으나 여학생은 '임신이 될까봐 걱정이다' (35.5%)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분이 좋다' (22.6%)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여학생들의 경우 임신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만 성관계후 남녀 모두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1〉 성관계 후 심정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후 회 하 였 다	36(15.8)	4(12.9)	40(15.4)	13.320
임신이 될까봐 걱정된다	37(16.2)	11(35.5)	48(18.5)	
죄 의 식 에 빠 졌 다	4(1.8)	0(0)	4(1.5)	
아 무 령 지 도 않 다	59(25.9)	2(6.5)	61(23.6)	
자 랑 으 로 생 각 한 다	5(2.2)	2(6.5)	7(2.7)	
성병에 걸릴까봐 걱정된다	6(2.6)	0(0)	6(2.3)	
기 분 이 좋 다	44(19.3)	7(22.6)	51(19.7)	
기 타	37(16.2)	5(16.1)	42(16.2)	
계	228(100.0)	31(100.0)	259(100.0)	

5. 성문제

성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성문제가 있는가, 성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성문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성문제에 대해서 〈표Ⅲ-22〉에서 보여주듯이 전체 응답자 849명 중 ‘고민이 없다’가 4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이성친구 문제’가 22.7%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성문제 중 많은 학생이 이성친구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 학생으로 비교하여 보면 남녀 학생 모두 ‘고민이 없다’가 43.6%, 50.3%를 차지하였으며, 성문제 중에서는 20% 이상이 ‘이성친구’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성충동, 성욕구’(8.1%), ‘임신과 피임’(5.9%)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으나, 여학생은 ‘월경 불순’(9.6%), ‘임신과 피임’(2.8%)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남녀 학생 모두 성고민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성문제 중 가장 많은 것이 여성에 대한 고민이며 특히 남학생은 충동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여학생은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2〉 성문제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임 신 과 피 임	29(5.9)	10(2.8)	39(4.6)	65.135**
이 성 친 구 문 제	111(22.5)	82(23.0)	193(22.7)	
성 충 동 · 성 욕 구	40(8.1)	7(2.0)	47(5.5)	
자 위 행 위	8(1.6)	2(0.6)	10(1.2)	
성 폭 행 · 강 간	8(1.6)	5(1.4)	13(1.5)	
월 경 불 순 (여)	3(0.6)	34(9.6)	37(4.4)	
고 민 없 음	215(43.6)	179(50.3)	394(46.4)	
기 타	79(16.0)	37(10.4)	116(13.7)	
계	493(100.0)	356(100.0)	849(100.0)	

(** : p<.01)

2) 성문제 해결 방법

〈표 III-23〉은 대학생들이 성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전체 응답자 858명 중 '친구와 상의한다'가 4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18.1%), '인터넷'(12.4%), '스스로 해결'(11.4%), '부모님과 상의'(2.9%), '선배나 상담전화'(2.7%), '잡지나 서적'(2.3%)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학교 상담실 선생님과 상의'가 0.7%로 가장 적다.

〈표 III-23〉 성문제 해결 방법

(%)

구 분	남	여	전 체	χ^2
부 모 님 과 상 의	9(1.8)	16(4.4)	25(2.9)	36.153**
학 교 상 담 실 선 생 님 과 상 의	3(0.6)	3(0.8)	6(0.7)	
친 구 와 상 의	210(42.4)	192(52.9)	402(46.9)	
선 배 와 상 의	19(3.8)	4(1.1)	23(2.7)	
성 상 담 전 화 이 용	14(2.8)	9(2.5)	23(2.7)	
잡 지 나 서 적	8(1.6)	12(3.3)	20(2.3)	
의 논 상 대 가 없 어 스 스 로 해 결	71(14.3)	27(7.4)	98(11.4)	
인 터 넷 을 통 해	76(15.4)	30(8.3)	106(12.4)	
기 타	85(17.2)	70(19.3)	155(18.1)	
계	495(100.0)	363(100.0)	858(100.0)	

(** : p<.01)

남녀 학생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역시 '친구와 상의한다'(남 42.4%, 여 52.9%)가 가장 많았고 '학교상담실 선생님과 상의한다'(남 0.6%, 여 0.8%)는 반응이 가장 적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친구와 의논하는 것 외에 스스로 해결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성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여학생은 주위의 가까운 친구나 부모님과 상의한다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문제를 관계지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요약 및 제언

본 조사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경험실태와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대학생들의 성문화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차후 학생들의 성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와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는 총 964명이며 여학생은 425명이고 남학생은 539명이다. 조사대상자에게 실시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성교육의 경험, 성교육의 도움 정도, 성지식 정도, 성지식 습득 경로와 시기를 조사하였다.

첫째, 성교육의 경험은 전체의 92.4%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성병이나 피임에 대해 가장 많이 배웠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교육을 받았으며, 남학생은 섹스에 대해, 여학생은 낙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

둘째, 성교육의 도움에 대해서 40% 이상이 중성적인 응답을 하므로 성교육이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학생들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

셋째, 성지식은 임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성병에 대해서는 가장 적게 알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5개 항목 모두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성교육은 여학생이 더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성지식은 남학생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얼마나 더 정확히 알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성지식 습득경로는 학교(29.2%)와 친구, 선배(19.0%)를 통해서 성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았고, 과연 친구나 선배를 통해서 얻은 지식의 내용과 질이 어떠한지 우려할만한 바가 크다.

다섯째, 성지식 습득 시기는 대부분이 중학교(54.9%) 때이고, 초등학교 때에도 26.8%나 되었다. 이는 성장기의 아동들이 예전에 비해서 일찍 성숙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성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점차로 증가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결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결혼관, 혼전섹스, 동거, 혼전순결, 혼전 순결에 대한 배우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처신, 상대가 순결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대처법, 기혼자의 이성친구, 혼외정사에 대해 조사하였다.

첫째, 결혼은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30%를 넘었고 성별로 남학생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여학생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둘째, 혼전섹스에 대해 70% 이상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용적이었고 성별로 여학생은 '혼전섹스는 옳지 않다' 30.3%, 남학생은 18%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여학생이 더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셋째, 동거에 대해 4.7%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허용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훨씬 더 허용적이었다.

넷째, 혼전순결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개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허용적이고 개방적이다.

다섯째, 결혼시 혼전순결에 대해 배우자가 문제 제기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처신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남학생은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54.2%)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여학생은 기타(35.1%), '당장 헤어진다'(21.3%)고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섯째, 결혼 전에 상대가 순결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결혼 전의 배우자의 순결 문제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상관없다'는 반응은 남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또한 '헤어지겠다'는 반응도 역시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남학생들은 배우자의 혼전순결에 대해 개방적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양면적 성향을 보였다.

일곱째, 결혼 후 이성친구에 대해서는 8.3%가 '다른 이성은 만나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나머지 91.7%가 '결혼 후에도 만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혼자의 이성교제에 대해 개방적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기혼자의 이성교제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여덟째, 혼외정사에 대해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다.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이성교제의 경험,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 경험을 조사하였다.

첫째, 전체 학생 942명 중 70% 이상이 이성교제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은 남녀 모두 키스가 29.6%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남학생은 섹스(남 22.4%, 여 4.0%)와 애무행위(남 12.6%, 여 8.3%)에서 여학생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 신체접촉이 더욱 적극적이고 대담하다.

성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섹스 경험의 유무, 성경험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 성경험의 대상, 성경험 당시의 심리적 상태, 성경험 후의 두 사람의 관계, 성관계 후의 심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첫째, 섹스경험은 70% 이상의 학생들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섹스경험을 한 경우가 더 많았다.

둘째,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행동을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더 충동적으로 성경험을 한다.

셋째, 성경험의 대상도 지속적으로 사귀었을 때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여학생은 지속적으로 사귀게 될 때 성경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성경험에 있어서 여학생 보다 충동적이다.

넷째, 성경험 당시 심리적 상태는 남녀 모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다섯째, 성관계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되어 사귀거나 만나(53.7%)는 경향을 보였다. 여섯째, 성관계 후 심정은 남녀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학생인 경우엔 특히 임신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다.

성문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성문제와 성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첫째, 현재 고민하고 있는 성문제에 대해 46.4%가 고민이 없었으며, 22.7%가 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충동성에 대해, 여학생은 생리적 현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둘째, 성문제 해결방법은 46.9%가 '친구와 상의한다'가 가장 많았고 '학교 상담실 선생님과 상의한다'는 0.7%로 소수가 응답하였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친구와 상의하고 그 중 여학생들은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와 의논하는 관계 지향적인 문제해결 양식을 보이는 반면, 남학생들은 친구 뿐만 아니라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어내는 사물 중심적인 문제해결 양식을 선호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경험은 중학교 이전부터 있었으며 주로 학교와 친구, 선배를 통해서 성지식을 습득한다. 그러나 성지식의 수준과 성교육의 도움 정도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성별로 살펴볼 때에도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은 성교육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지식 수준은 더 낮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얼마나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적용이 되고 있는가는 좀 더 검토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절반 이상의 대학생들이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혼전의 순결이나, 동거, 기혼자의 이성친구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견을 갖고 있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욱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예전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중시하던 시대와는 달리 사랑을 더 중시하는 현 시대 풍조에서는 성의 지나친 방종이나 문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이루기 위한 각종 교육과 문화적 행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성교제는 하고 있으나 섹스 경험을 한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섹스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거치기보다는 단순한 감정에 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이성교제와 관련 된 각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람직한 성행동 의사결정을 하도록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성지식 습득 경로나 자신의 성 문제를 의논하고자 하는 대상이 거의 대부분 친구나 선배라고 하는 것은 혹 성에 대해 왜곡된 정보나 그릇된 가치관과 정보를 얻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학 내의 상담센터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친구처럼 의논할 수 있는 상담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박명규(2003).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와 정책.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손정남, 차보경(2003). 대학생의 성태도 유형 및 성 경험에 대한 연구, 한서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이상진, 윤지현, 이면우(2002). 성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춘천교육
대학교 학생지원상담소.
신정숙, 홍성미, 채가란(2002). 재학생의 성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성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 두화, 김 경순(2000). 대학생의 이성관계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Abstract>

**Research on the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Sex
Focusing on Students of CNU**

Kang, mi-la, Kim, Doo-Hwa, Kim, sung-hyu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help college students better understand the culture on sex and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fully used for education on sex in the future by exploring college students' experience and perception on sex.

964 participated in this survey. 425 were female, and 539 mal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1. Knowledge About Sex

First, when asked about education on sex, 92.4% of respondents said they received education on sex, and its focus was primarily placed on venereal diseases and contraception. Female students received more of the education. While men learned more about sex, women were educated relatively more about abortion.

Second, when questioned about the benefits of education on sex, over 40% of respondents responded neutrally to the benefits of education on sex, which means that they believe the education helps little.

Third, in terms of knowledge about sex, participants know best about pregnancy. On the other hand, they have least knowledge about venereal diseases. By sex, male participants answered they know better in five categories than their counterparts. Female respondents received more education, but female participants had more knowledge, so more detailed research are necessary to explore how accurate their knowledge is.

Fourth, in most cases, they get knowledge from school(29.2%), and friends or older students(19.0%). Concerns are raised about the quality of information acquired from friends or older students.

Fifth, a majority of participants(54.9%) get knowledge about sex while in middle school. some of them(26.8%) while in elementary school. It is partly because children mature earlier than before, and they are exposed to a variety of media, increasing chances of getting misleading information on sex.

2. Opinions on Marriage

First, when asked about marriage, over 30% of participants said that they 'like living alone if possible' or 'it depends.' By sex, while males have positive opinions on marriage, females reserve their comments.

Second, in terms of having sex before marriage, 70% supported it. By sex, 30.3% of female respondents said having sex before marriage is not right, and only 18% of male participants said it is not right. It can be referred that females are more conservative.

Third, when asked about living together without getting married, only 4.7% of participants had negative opinions. Most participants said it is acceptable. By sex, males were more tolerant than their counterparts.

Fourth, in terms of virginity, 70% are open. Males are more open than females.

Fifth, when asked about how they react if their mates raise questions of virginity, 54.2% of male respondents said they will confess and ask forgiveness. On the other hand, 21.3% of female participants said they will break up, and 35.1% had other choices. The fact shows that women tend not to face the problem, and act passively.

Sixth, when questioned about how they would respond if they know their mates are not virgin, more than half of male respondents said it does not matter. More males said it does not matter than females, and at the same time, male respondents who said they will break up outnumbered their counterparts. This shows that male participants have both open and conservative attitudes towards virginity.

Seventh, when asked whether their mates can meet friends with the opposite sex after marriage, 8.3% said 'no,' and 91.7% said 'yes.' Most student are tolerant about mates can meet friends with the opposite sex after marriage. By sex, men were more cautious than women.

Eighth, 70% of respondents shows negative opinions about extramarital sex.

3. Dating

First, in terms of sexual experience, 70% of respondents said they had no experience. By sex, men had more sexual experience than women.

Second, most of the respondents who have sexual experience tend to make an emotional decision. By sex, men are more impulsive than women.

Third, the longer relationship continues, the higher chances of having sex there are. By sex, in terms of women, chances of having sex increase as relationship continues longer. On the other hand, men are more impulsive.

Fourth, when it comes to psychological status when having sex, both sexes are relatively satisfied.

Fifth, 53.7% tend to continue their relationship after having sex.

Sixth, both sexes are satisfied after having sex, however women are particularly worried about pregnancy.

4. Sex-related Problems

First, 46.4% of respondents said they currently have no sex-related worries, and 22.7% have problems related to the opposite sex. Men are worried about impulsiveness, and women are worried about a physiological phenomenon.

Second, when it comes to solutions, 46.9% said they consult with their friends. Only 0.7% said they meet with their teacher. Apart from discussing it with their friends, women opt for relationship-oriented solutions, consulting with their parents. On the other hand, men prefer object-oriented solutions, gathering information through friends, books, and the Internet.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ed advice is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have received education on sexual morality since middle school, and they collect information primarily from their friends or older students. But most of them are dissatisfied with the benefits of the education. By sex, women received more education, but they have less knowledge than m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how effective education on sexual morality conducted in school is.

Second, more than half of students have positive opinions on marriage, and they are

open about having sex or living together before marriage, and meeting friends with the opposite sex. In the past, the marriage system itself was considered important, but in modern society, love tends to be put before marri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variety of educational and cultural events to bring about desirable sex morality.

Third, most of respondents are having a date, but not many of them have sex experience. respondents who have sex experience tend to make an impulsive decision without thinking carefully, continuing their relationship longer. Therefore, there should be some opportunities to help them make a desirable decision on sex.

2004년 대학생 성의식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학생 여러분들의 성의식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리 대학교 상담·봉사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실에서 실시하는 설문지로서 재학생들의 효과적인 상담과 성폭력 예방대책에 필요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익명으로 실시되며,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오니, 설문에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____ 대학 _____ 학과군(학부, 학과) _____ 학년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실

▶ 다음의 물음에 답은 해당되는 번호에 O표 하십시오.

'예' ①하 늘 (O) ②바 다 (X)

▶ 복수응답을 요하는 문항 외에는 반드시 한개의 답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I. 인적사항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당신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 ()안에 직접 쓰십시오.

만(_____)세

3. 지금 제주대학교 몇 학년에 재학 중이십니까 ? ()안에 직접 쓰십시오.

(_____) 학년 재학 중

4. 현재 믿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없 다 ② 불 교 ③ 개신교 ④ 카톨릭 ⑤ 기 타

II. 성 지 식

5. 다음과 같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받았으면 V표, 복수응답 가능)

5-1. 전혀없다 _____

5-2. 섹 스 _____

5-3. 성 병 _____

5-4. 피 입 _____

5-5. 임 신 _____

5-6. 낙 태 _____

6. (성교육을 받은 응답자만) 성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3. 혼전 순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사랑이 문제이지 순결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②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다
- ③ 현대 여성이라면 자유롭게 성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④ 남녀 모두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⑤ 여자는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4. 결혼 시 배우자가 순결을 문제 삼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 ① 당장 헤어진다 ② 남편(아내)의 혼전순결을 따지며 싸운다
- ③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④ 남편(아내)의 처분에 따른다
- ⑤ 기 타

15. 만약 결혼 전 상대가 순결하지 않음을 알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 ① 상관없다 ② 다시 생각 해 본다 ③ 헤어지겠다 ④ 기 타

16. 결혼을 한 후의 이성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남편(아내)과 다른 차원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 ② 남편(아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만나야 한다
- ③ 남편(아내)과는 별개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 ④ 결혼을 했으므로 다른 남자(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17. 결혼을 한 후의 혼외정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사랑하는 사람끼리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 ② 성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③ 남편(아내) 이외의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의 연정도 품어서는 안된다
- ④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

IV. 이성교제

18. 이성교제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현재 교제 중이다 ② 현재 하지 않지만 경험이 있다 ③ 전혀 경험이 없다

19.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이성교제시 경험한 신체적 접촉은 ? (복수응답 가능)

- ①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 ②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
- ③ 포 용 ④ 키 스
- ⑤ 가슴 등의 신체부위에 대한 스킨십(애무행위) ⑥ 섹스

20.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이성이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거나 접촉을 원하는 눈치를 보 인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

- ① 지나치지만 않으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준다
- ② 적극적으로 함께 응한다
- ③ 징그럽고 소름이 돋는다
- ④ 다시 만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바꾸겠다
- ⑥ 경험 없음

V. 성 경험

21. 자의든 타의든 섹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없 다
- ② 있 다

22. (섹스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섹스를 한 경험이 없는 주요한 이유는 ?

- ① 결혼 전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 ② 부담스런 관계가 될까봐
- ③ 관계가 그 정도로 진척되지 않아서
- ④ 상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 ⑤ 섹스 후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 ⑥ 임신에 대한 염려 때문에
- ⑦ 기 타

※ 섹스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문23~문28에 응답하십시오.

23. 성경험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

- ① 상대방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충동을 느껴서
- ② 결혼까지는 생각 해 보지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
- ③ 결혼 상대자인지에 대한 고민은 했지만, 서로 원해서
- ④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데이트 중에 분위기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 ⑤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
- ⑥ 상대방의 청에 못 이겨서
- ⑦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 ⑧ 기 타

24. 성경험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

- ① 가볍게 사귀던 사이
- ② 결혼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사귀던 사이
- ③ 결혼상대로 생각하고 꾸준히 사귀던 사이
- ④ 처음 만난 사이
- ⑤ 안면만 있는 사이
- ⑥ 친구사이
- ⑦ 기 타

25. 성경험 당시의 심리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 ① 나와 상대방 모두 매우 만족스러웠다
- ② 나는 대체로 만족스러웠으나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였다
- ③ 나는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대체로 만족스러워 하였다
- ④ 나는 매우 불쾌하였다
- ⑤ 상대방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 ⑥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 ⑦ 후회한다 ⑧ 잘 모르겠다 ⑨ 기 타

26. 성경험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

- ① 두 사람 모두 동의하에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고 있다
- ② 나는 상대방이 동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
- ③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 ④ 기 타

27. 성경험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

- ① 변함없이 계속하여 사귀거나 만나고 있다 ② 헤어지거나 만남이 중단되었다
- ③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고 있다 ④ 기 타

28. 성관계 후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

- ① 후회하였다 ② 임신이 될까봐 걱정 된다 ③ 죄의식에 빠졌다
- ④ 아무렇지도 않다 ⑤ 자랑으로 생각한다 ⑥ 성병에 걸릴까봐 걱정된다
- ⑦ 기분이 좋다 ⑧ 기 타 ⑨ 경험 없음

29. 현재 고민하고 있는 성문제는 무엇입니까 ?

- ① 임신과 피임 ② 이성친구 문제 ③ 성충동, 성욕구 ④ 자위행위
- ⑤ 성폭행, 강간 ⑥ 월경불순(여) ⑦ 고민 없음 ⑧ 기 타

30. 성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것을 해결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하나요 ?

- ① 부모님과 상의한다 ② 학교 상담실·선생님과 상의한다
- ③ 친구와 상의한다 ④ 선배와 상의한다
- ⑤ 성상담 전화를 이용한다 ⑥ 잡지나 서적을 통해 해결한다
- ⑦ 의논상대가 없어 스스로 해결한다 ⑧ 인터넷을 통해서
- ⑨ 기 타

31. 성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울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① 없 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교 수
- ⑤ 친 구 ⑥ 형제·자매 ⑦ 상담전문가 ⑧ 기 타